

-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
- 풍요로운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정정보도 방송을 수행함이 이 시대의 요청임을 깊이 인식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불의로부터 지켜 나간다.

##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에 KBS부산 김기태 기자 ‘연속기획-목소리’

지난 2월16일 시상식, 7개 보도부문·공로상·굿뉴스메이커상 등 시상  
“공영방송·지역방송의 위기 속 더 좋은 영상보도 위한 ‘착한 경쟁’ 마중물 되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지난 2월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연속기획 ‘목소리’를 보도한 KBS부산 김기태 기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한국영상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2023년 ‘이달의영상기자상’ 수상작과 올해 1월 출품된 작품을 심사해 지난 1월 대상 등 7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지역뉴스 특종·단독보도 부문은 KBS전주 한문현 기자의 ‘[현장K]’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가, 뉴스 탐사기획보도 부문은 KBS대구 최동희 기자의 ‘육창이 온다’가 수상했다.

보도특집·다큐 부문에는 MBC제주 김현명 기자의 ‘4.3특집 남겨진 아이들’이, 멀티보도 부문에는 MBC목포 김승호 기자의 ‘10부작 미니 다큐멘터리-남도의 훈, 도자기 오디세이’가 각각 선정됐다. 국제·통일보도 부문은 SBS 최대웅 기자의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에, 환경보도 부문은 KCTV제주방송 김용민 기자의 ‘KCTV환경기획 뉴스멘터리 사라진 제주 돌’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한국영상기자상 서태경 심사위원장은 대상 수상작인 ‘목소리’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속마음

을 감각적인 영상과 밀도 있는 편집으로 감동과 재미까지 쫓아낸 대작으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매일 이어지는 취재 현장이라 간혹 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카메라에 담은 영상들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된다.”면서 영상가들을 향해 “그 소명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박성호 회장은 “취재가자들이 출입처 시스템에 아직 많이 갇혀있는데 반해 영상가자들은 마이크 앞에 잘 서지 않는 사람들,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을 앞에 불러 세워 그분

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뉴스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영상가자들의 힘”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공로상은 지난 2년 동안 협회 부회장을 맡아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힌트포터 국제보도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공적을 인정해 YTN 김경록 부국장도 MBC부산 손영원 부국장에게 수여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협회가 진행해 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과 교육, 현장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영상 저널리즘 발전에 기여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장민주 대리와 이수연 주임에게도 공로상이 돌아갔다.

21회 굿뉴스메이커상은 한국형



▲ 제 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상했다. 항우연 이상률 원장은 “1989년 항우연이 설립된 이후 우주로 가는 유일한 수송 수단인 발사체 연구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지금 발전에 기여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장민주 대리와 이수연 주임에게도 공로상이 돌아갔다.

상기자님들 덕분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그런 울림이 잘 전달된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나준영 회장은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의 독립과 생존이 어느 때보다 크게 위협받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방송의 본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민과 노력을 벌여 왔는가를 증명하

는 결과물들”이라며 “7명의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전국의 영상가자들에게 더 좋은 영상보도를 위한 ‘착한 경쟁’의 마중물이 되어 2024년도에도 오늘의 성과를 이은 영상가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 현장취재진 위험으로 내모는 KBS의 인건비 감축 국가재난방송, 공영방송보도기능 위축 불가피

KBS 인건비 1100억 삭감...보도영상 분야 보조인력 인건비 50% 감축 돌입

KBS가 수신료 분리 정수로 인한 수입 축소로 1100억 원의 인건비를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영상가자들의 현장취재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오디오맨 인력의 50% 감축에 돌입했다. KBS는 지난 1월31일 정기이사회에서 비용예산 1조 3,881억 원, 수입예산 1조 2,450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화할 경우 수신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분리고지로 인한 납부를 하라 결산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어 이 같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KBS는 △국장 및 부장 임급 반납 △연차 휴가 100% 촉진 △신규직원 채용 중지 △임금 및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약 1,100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건비가 아닌 각 본부별 수수료 항목으로 분류되는 한시 인력 예산도 50%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 본사, 오디오맨 70여명→30여명 될 듯...

이미 오디오맨 부족한 지역KBS "이러다 취재가는 기자들이 차량운전까지 하는 것 아닌가?" 불안

이러한 방침은 보도영상국에도 그대로 시행되어, 현재 70여 명의 영상취재보조인력(오디오맨)을 운영 중인 KBS보도영상국(서울)은 올해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오디오맨들을 총원하지 않으면 연말에는 오디오맨이 3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뜰이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KBS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역 총국의 경우 영상가들이 5-7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자가 발생해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촬영 보조인력까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현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취재 차량 운전도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니

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영상취재, 라이브연결, 송출 등 영상기자 역할 늘어나는데 오디오맨 없는 국가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취재진, ‘부실취재’, ‘현장안전위험’가능성 커져

2000년대 초반부터, IT기술발전에 따른 무선송신수신 취재장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경량화되면서, 취재현장에서 MNG(Mobile News Gathering)장비의 보급과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중계팀의 뉴스밴을 이용하거나 송출장비가 설치된 지국과 송출소를 찾아가야만 취재영상을 송출하고, 취재기자의 생방송 현장연결을 해야 했던 것이 MNG장비의 등장으로 중계차나 뉴스밴, 송출소로의 이동 없이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영상가들과 취재진이 뉴스현장 한가운데서, 더 생생하게 취재, 보도한 영상을 송출하고 생방송 할 수 있는 뉴스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는 과거 여러 명의

중계PD, 엔지니어가 거대한 장비를 움직여야 가능했던 일을 한 명의 영상가자가 책임지고 역할 하도록 업무를 집중시켜 놓았다. 이로 인해, 취재현장에서 원활한 영상 취재, 송출, 라이브연결을 진행하려면, 이를 도와줄 오디오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영상가자가 취재와 송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디오맨은 MNG장비 운영의 보조를 맡아 회사의 영상수신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정적 송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상가자의 취재 시, 원활한 취재를 위해 장비의 관리, 이동, 이동식 유무선마이크의 운용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상황을 영상가자에게 알려주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는 재난재해의 발생 빈도가 더욱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오디오맨 감축은 취재, 보도에서 더욱 역할이 커진 영상가자의 취재, 보도 업무를 부실하게 만들어, 오랫동안 역량을 강화해온 KBS의 재난재해 취재, 보도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의 한 영상가자는 “지금은 계약 만료된 사람이 많지 않아 보조 인력 감축에 따른 여파가 체감되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 만료자가 늘어날수록 업무 강도는 물론 현장에서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해, 여름 잇단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때 KBS지역국의 한 영상가자는 오디오맨 없이 취재를 나갔다가 토사 유실지역에 있던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안전교육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어 몇 달간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해당기자가 근무했던 지역국은 오디오맨의 수가 부족해 오디오맨과 함께 재난현장에 취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안전문제가 취약한 위험한 현장에 취재를 가야하기 때문에 10여분을 기다렸다가 다른 영상가자와 함께 취재를 나간 오디오맨이 돌아오면 취재를 갈까 고민했지만, 재난보도를 위해 일본일초가 촉박했기 때문에, 혼자 취재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차질 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했다. 만약 당시에 오디오맨이 함께 있었다면 촬영에 정신이 없던 자신에게 나무가 쓰러지는 위험한 순간을 미리 경고하고, 대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고 아찔

했던 사고당시를 떠올렸다.

지역 KBS의 한 기자는 “영상가자가 취재를 하는 데 있어 보조인력의 유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촬영 현장에서 점점 거칠고 위험해지는데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인력이 줄어들게 돼 기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전국기자회는 이 상황을 우려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인력 채용은 중단되고 (명예퇴직 실시와 정년퇴직으로) 퇴직자는 늘고, 여기에 수신료 업무가 더해지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디오맨 등 한시적 인력 예산을 감축할 때 조합에서도 강하게 항의했지만 회사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감축안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상가자 보조 인력인 오디오맨의 경우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영상가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긴 했지만 어떻게든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무등산 정상개방

동물보호소 10년 민원 해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지하철 2호선 2단계

Y프로젝트

명품 품앗이수 조성

복합쇼핑몰 3중세트

군공항 이전

동광주~광산C 확장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첫 공공심아어린이병원

2024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한 광주

살기·즐거기가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4월 1일부터는

기획도시 광주

제 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심사평

2023년 뉴스현장 속에서 피어난 TV뉴스의 꽃들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장\_ 서태경



제 37회 한국 영상 기자상 수상작들을 선정했습니다.

어느 해나 다사다난함이다만 지난 해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우리 영상 기자들과 그들의 카메라가 함께 했습니다.

출품작 모두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어서 굳이 수상작들을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상작을 고르는 심사위원 모두 신중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작품을 평가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은 KBS부산 김기태 기자의 연속 기획 ‘목소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성소수자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타투이스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릇된 시선으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받는 그들,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밀도 있게 담았습니다. 미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너무 무겁지도 않게 감각적이며 따뜻한 영상과 편집은 감동과 재미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상으로 충분히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에서는 KBS전주, 한문현 기자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부실 보고서)로 결정했습니다.

[현장K]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단독 기획보도

땀질 처방만 반복된 항만 구조물 붕괴... '기준'은 없었다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_ KBS전주\_ 한문현



정부가 새만금에 새로운 항만을 짓는 사업,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2040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쓰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인접한 바다에 기초구조물인 호안을 쌓고 이제 서서히 부지를 메워가는 중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의 뼈대인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땀질 처방만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기초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던 토목섬유, 이른바 ‘필터매트’는 서해의 극심한 조수간만 수압에 못 이겨 손상돼 있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단계부터 국가건설기준 자체가 일본식의 인용으로 국내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과 한계를 보도했습니다.

필터매트의 문제를 포착했지만, 사실 취재의 시작은 ‘천’이 아닌 ‘돌’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직은 겨울바람이 시릴 무렵 찾아온 억자는 국가항만 건설에 불량석재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이미 쌓아 올린 수십만 톤을 싹 갈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뭇 구미가 당겼으나 의도가 뻔해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경계심은 곧 들어맞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에 쓰인 돌, ‘사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품질 검사 성적서를 떼냈고, 그것도 못 미더

워 시료를 떼와 대학 연구팀에 보냈습니다. 이 작업에 쓰인 시간과 수고가 헛되어 매몰될 무렵, 정보공개 청구 자료들이 뒤늦게 날아들었습니다. ‘사석이 쓰인 날날의 공사를 공개하라’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작성한 ‘하차발생 조치 보고서’를 끼워 보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운데 “새만금 신항만 현장 내 호안단면 하자 발생으로 조치하였으나, 추가 변위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추가’란 표현으로 보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고는 거듭된 듯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원인은 따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어 올린 항만 구조물이 1년 새 최소 11군데 무너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정부가 그간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또 다른 시설물을 더 점검하기로 하고 전국 현장 취감에

파병된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 퐁넷’마을 주민 2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에 대한 취재입니다. 피해자 중 ‘응우옌 티 탄’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제 치하 피해자였던 우리가, 타국에서 벌인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슴 아프면서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인터뷰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다각의 영상 취재를 위해 집별, 슬라이더, 드론 등 여러 특수 장비를 동원해 촬영, 영상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환경보도부문에서는 KCTV제주방송의 김용민 기자의 “사라진 제주 돌”이 선정됐습니다.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라는 김용민 기자. 그의 말처럼 이 작품은 점점 황폐화 되는 제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된 해양 시설물과 사라지는 몽돌의 관계도 현장 수중 촬영으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상관관계를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몽돌의 ‘백 웨이브’ 현상에 대한 수중 촬영, 부상을 들고 바닷가로 향하는 해녀들이 부상으로 바다 밑바닥을 헤치며 마치 거대한 먹물처럼 해녀들과 함께 피어오르는 검은 뱀은 상징적으로 제주 바다의 현재 모습을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의 본보기가 됐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2024년 2월입니다. 올해의 뉴스 영상엔 더 좋은 일들이 많길 바라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사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굴함이 없이 올바른 영상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영상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TV뉴스의 꽃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꽃을 활짝 피우세요.

나섰습니다. 팽택항과 영종도 등 앞선 현장들을 돌아보고 학계와 업계, 정부가 작성해둔 과거 보고서와 논문 등 자료를 뒤져 뽑아낸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 삼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의 붕괴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리던 바람이 포근해질 즈음,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3편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는 대중의 체감 영역 밖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탓에 제대로 된 전달을 통한 인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토목공학 분야의 내용을 전하면서 일반 수용자의 이해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순화했습니다. 보도 영상 가운데 스튜디오 촬영물도 이런 맥락에서 기획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했고, 모든 과정에서 현장 전달과 시청자 이해를 우선으로 제작하려 했습니다.

3편을 합쳐도 불과 10분이 채 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녹여내며 현장과 편집실에서 함께 고민한 오정현 기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보도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호 범정”뉴스를 바탕으로 강서경, 김을숙, 김성자, 송병기 네 명의 직권 재심 재판 증언과 75년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고, 직권 재심 담당 검사와 판사의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37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보도 특집 부문 수상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영방송들이 매우 힘든 시기에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을 보여준 것 같아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4.3 유가족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제주 4.3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후배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MBC제주 보도국 김찬련 취재부장과 영상센터 그리고 보도국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MBC제주 남겨진 아이들은 “201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소감

KCTV환경기획 뉴스멘터리 사라진 제주 돌

‘먹돌’ 사라진 자연환경 보여주려 고민...환경영향평가 한계와 개선 방안 찾는 취재

환경보도부문 수상소감 \_ KCTV제주방송\_ 김용민



어느 날 ‘해녀 삼촌’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과거 먹돌 해안으로 불리던 탐동 바다에 먹돌이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태왁과 망사리 대신 삼을 든 충격적인 모습으로 바다로 나선 삼촌들. 함께 들어간 바다에 그 많은 돌은 사라지고 퇴적물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삼으로 힘겹게 검은 퇴적물을 파내자 암흑 속에 묻혀있던 먹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도동 주민들은 몽돌해안으로 유명한 앞작지의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몽돌’, ‘먹돌’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보호받고, 특히 제주특별법에서도 ‘화산송이’나 ‘검은 모래’ 등과 함께 주요 보존 자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부터 오랜 시간 굴러 내려와 제주만의 독특한 해안 경관을 만들던 몽돌과 먹돌.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돌이지만 돌이 사라지면 제주의 역사와 가치도 사라진다는 생각에 6편의 기획취재와 뉴스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내도동 앞작지의 몽돌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도동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특정 지점에서 몽돌이 일

마 동안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규명하는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KCTV제주방송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21년 앞작지 해변 촬영 지점을 2023년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재촬영해 실제 몽돌 유실 여부를 비교했습니다. 촬영 결과 불과 2년 만에 몽돌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안 시설물이 들어서며 바뀐 물길과 파도로 인해 해안이 더 많은 몽돌이 만바다로 사라지는 ‘백웨이브’ 현상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몽돌 유실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 우려에도 제주도의 사후 관리나 보존 대책은 몽돌과는 무관한 엉터리 대안뿐이었고, 몽돌 유실은 해안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방치와 무관심이 더해진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먹돌 해안, 해녀들과 함께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녀들은 삼으로 모래와 진흙을 파내고 그 아래 파묻혀 있던 먹돌을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퇴적물로 인해 먹돌이 사라지자 해조류와 생물이 자취를 감추고, 해양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해녀들의 생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를 수중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해녀들은 먹돌이 사라진 이유를 방파제로 지목했습니다.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방파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였습니다.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 이후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으로는 해양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와 각 조사 지점의 실제 해양 환경을 직접 촬영해 비교했고, 수질과 퇴적물 등 각종 분석표를 바탕으로 해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해양 수질, 식생, 해안 토목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오류값도 발견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요 지점과 항목별로 조사하도록 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오류투성이었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에 평가 권한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시작하며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과거 촬영된 자료와 같은 곳을 명확하게 비교해 변화한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진실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수중 촬영(수중드론)과 120.240HFR 고속수중촬영을 통해 보고서와 다른 해양 실태를 보여줬고, 24M 프로브렌즈와 슬라이더를 활용해 어려운 보고서의 내용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규 뉴스 보도 이후 6편의 기획뉴스를 ‘뉴스멘터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 해녀들이 의혹만으로 제기했던 해양 시설물과 몽돌, 먹돌 유실과의 인과관계를 수개월간의 현장 수중 촬영과 자료 분석, 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보람도 큼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과 취재를 같이한 KCTV 제주방송 김경민 기자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SBS 8뉴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가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고찰

국제·통일보도부문 수상소감 \_ SBS\_ 최대웅



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응우옌 티 탄’ 씨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베트남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SBS는 선고 이후 실제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아가 생존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차로 수 시간. 한국에선 휴양지로 더 잘 알려진 다낭의 복잡한 관광지와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 한국군이 주둔했던 작은 마을에 도착하니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학살의 흔적과 기록(위령비, 증오비)은 생생하게 남겨져 후손들에게도 그날의 만행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만나주지 않거나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오히려 멀리서 취재를 와준 것에 감사해하며 오래된 이야기를 가슴 속에서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 탄’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어린 동생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밟고 도망치던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면 ‘응우옌 티 홍’ 씨도 있었다. 그들에게 우리 국방부가 판결에 합당한 사실을 알리니 총, 칼에 망가진 내 몸이 증거라며 저마다 웃을 들쳐 보이기도 했다.

베트남 취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류진성 씨를 만났다. 그는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첫 안 되는 참전 군인이었다. 무고한 양민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자신을 변화시킨 건 다른 아닌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도 말했다. 노병의 말처럼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작품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협회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쉽지 않았던 취재를 함께하며 매 순간 머리를 맞댄 김상민 기자와 몸심양면 도움 주신 SBS 영상취재팀 팀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MBC제주 4·3 특별기획 남겨진 아이들

76년 만에 드러난 ‘4·3 사건 속 남겨진 아이들’의 비극과 역경의 기록

보도특집다큐부문\_ MBC제주\_ 김현영



제주 4.3 직권 재심 재판을 처음 취재 하던 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겨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76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이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빨갱이의 자식이란 이유로 연좌제와 부모 없이 자란 아픔과 상처를 갖고 계신 유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검사, 그리고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의 감정이 담긴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군인들이 사람 손을 뒤로 뒹고

〈인터뷰〉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자

“전동휠체어 끌고 2시간 이동…고생한 시간만큼 책임감 커진 작품”

편견을 깨부수는 영상으로 소수자들의 현실,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연속기획 〈목소리〉’\_ KBS부산\_ 김기태



적은 수의 사람. 국어사전은 그들을 ‘소수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는 수의 열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소수자’다. 올해 한국영상기자상 심사위원들은 ‘표준’ 또는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선과 제도가 밀어내는 사람들을 카메라 ‘안에’ 담은 작품에 주목했다. 부산KBS 김기태 기자의 연속기획 〈목소리〉가 그것이다. 올해 영상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김기태를 지난 13일 전화 인터뷰했다.

Q 지난해에는 대상 수상작이 없었는데,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 달라.

A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룬 아이템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자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획을 만들 때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소수자의 수 자체가 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적어 조직도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이 이슈를 다룰 기회도 적었다. 또, 이번 작품이 뉴스로 나갔는데, 뉴스에서 소수자 관련 기획을 내보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수상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언론에 대한 기대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제작팀의 책임감을 높게 사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Q 연속기획 〈목소리〉는 성소수자, 비혼 공동체,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목소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A “이이슬 취재기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모에 당선되면서 합류하게 되었다. 소수자에 대한 기획을 만들 거고, 5~6분 정도 되는 미니다큐를 만들자는 정도의 개괄적 상황만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영상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2023년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가 논란이 커서 우선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했고, 비혼 공동체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이성 비혼 공동체도 있어 성소수자와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재기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분야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직접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타투이스트들과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싶었다.”

Q 데일리 뉴스 제작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A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여건상 어떤 기획이 나왔을 때 전념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다. 나는 우선 기획에 집중하고, 촬영이나 편집이 없는 날 데일리 뉴스를 할 수 있도록 데스크가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 그러다 보니 데일리 뉴스를 촬영하는 팀에서 평소보다 편집 물량을 더 많이 제작해 줬다. 구성원들이 많이 희생하고 도와주어서 기획에 전념할 수 있었다.”

Q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목소리〉에 대해 “너무 무겁지도 않게, 하지만 감각적이고 따뜻한 영상과 편집으로 감동과 재미를 함께 주었다”고 평가했다. 주제가 무거운데, 어떤 방향으로 촬영하려고 했다.

A “제일 큰 기준은 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깰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었다. 5부작을 만들면서 2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직접 만나 보니 생각보다 훨씬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거기서 든 생각이 나처럼 평소 소수자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놀라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소수자라면 주류에서 벗어나 있어 뭔가 내면의 우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데일리 뉴스와는 다르게 작은 카메라를 여러 대 쓰고, 랙타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말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밝은 에너지 속에서도 가슴 속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걸 보여주려면 익숙한 리드롤보다 리드롤을 적게 가져가는 것을 통해 사회를 향한 답답함에 대한 감정을 좀 더 보여주려고 했다. 각도를 비틀거나 로 앵글로 바라보거나 인터뷰 대상자 앞에 무언가를 걸쳐 소수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싶었다.”

주제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컷 하나 하나, 고민

Q 〈목소리〉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주제 자체가 추상적이고 제도적 차원까지 끌고 가려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있어 근본적 어려움이 많았다. 비혼 공동체의 경우엔 설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소수자 이슈를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화면에 얼굴을 노출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비혼 공동체는 더 심해서 비혼 공동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일상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더 빈약해짐을 느꼈고, 이미지컷 하나를 찍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공을 들였다. 취재원 집의 방장고에 가족사진이 붙어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과 비혼 공동체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Q 제작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

A “장애인 이동권 편을 촬영할 때 변재원 작가가 “이동권은 모든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지하철역에 놓인 휠체어를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꼭 담고 싶었다.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차량에 실을 수 없어



전철역까지 가져오는 게 난관이었다. 결국 휠체어를 끌고 인터뷰 대상자 집에서 촬영 장소인 서면역까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루트대로 이동하는 상황이 됐다. 완전히 평탄한 길만 찾아야 하고, 돌부리가 있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고, 가다가 길이 잘못돼서 돌아가고, 가다보니 길이 없고, 어떤 길은 위험하고, 미세한 턱도 넘을 수 없고…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거리가 2시간가량 걸렸다. 휠체어를 가져오면서 동행 취재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해 직접 겪으면서 그 시간 만큼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된 작품이다.”

돌봄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다큐 고민중

Q 5부작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은 없었나.

A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방송된 분량은 5분 내외로 적었지만, 취재량은 결코 적지 않았다. 촬영에 세 달, 편집 한 달 등 제작 기간이 네 달 정도 걸렸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는데, 워낙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온

전히 담아냈는지 돌아보게 된다. 긴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다뤘을 것 같다. 그럼에도 짧지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을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하다.”

Q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A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가 돌봄 노동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요양 병원의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는데, 아직도 돌봄 노동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돌아본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다. 의료계가 폐쇄적이어서 취재에 어려움이 많긴 하겠지만, 좋은 다큐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취재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영상기자가 기획 단계부터 모든 제작 과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동료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조직의 양해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라면 영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영상기자다.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KBS 기획보도 욕창이 온다

외로움에서 오는 병 - 욕창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_ KBS대구\_ 최동희



9년전 저는 영상기자협회 대학생 명예카메라기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명예기자활동을 하면서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자리에도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선배님들의 수상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영상기자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부러웠고 거기에 상까지 받는 모습은 더욱 멋있어보였습니다. 나도 언젠쯤이면 저 자리에 올라 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상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상상들을 현실로 이룰 수가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고민과 고충을 나누는 영상기자 선배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며 주신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더욱 값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영상기자가 되기전엔 눈에 보이는 것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것이영상기자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

여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창 또한 그러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데 욕창3~4기의 경우 차마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중과 방송에서 사실대로 보여드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역시 엉덩이 주변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건 욕창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보자였습니다. 피부가 괴사하는 모습은 사과가 썩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발목지뢰와 같은 표현은 도미노로 연쇄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자극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 느낌을 잘 전달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창을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욕창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압력에 의해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아기가 욕창이 생겼다는 말을 잘 들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소홀했던 결과들이 욕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욕창이라는 질환은 단순히 환자 한명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동반했습니다. 욕창이 더욱 심해지지 않기 위해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줘야합니다. 가족이 환자 옆에서 간호를 할순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환자 가족은 간병에서 해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간병인 고용비용은 하루에 약15만원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욕창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욕창치료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욕창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욕창환자는 더 늘어날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욕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간병비의 문제, 욕창치료 비용문제등 의료시스템과 사회적비용들을 들여다보고 점검함으로써 욕창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anasonic

4K Professional Camcorder  
HC-X2/X20

4K 60p 10bit의 우수한 묘사력으로  
인터뷰 기록에서 인서트 영상까지 대응



고객상담실 | 02-2106-6672



# 제 115회

# 이달의 영상기자상

# 작품 공모

▶▶▶▶

■ **출품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 **제출기간**  
2024년 3월 1일(금) ~ 3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 **심사** : 2024년 3월 22일(금) 오후 4시

■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http://www.tvnews.or.kr))

■ **문의** : 협회 사무처 (02) 3219-6476~7

▶▶▶▶

■ **시상부문(정회원예 한함)**

- ▶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 시선' 부문
- ▶인권·노동보도부문 ▶국제·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스포츠보도부문



## YTN 왓슈 소년들은 왜 사라졌는가? ‘선감학원’

### 아몰지 못한 국가폭력의 쓰라린 상처. 선감학원 피해자를 만나다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_ YTN\_ 강영관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을 마주하기 전까지 선감학원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세워져 40년간 운영되며 아동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선감학원'.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원생들은 선감학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갯벌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분묘가 100여기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2차 시굴 결과 발표가 있던 날, 발굴된 묘를 아직 발굴하지 못한 분묘 위에서 취재

해야 하는 낮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굴된 무덤의 크기는 작았고, 발굴하지 않은 분묘의 봉분은 낮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주검 위에서 세상에 드러난 유품과 유물을 취재하려니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리포트를 기획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성토양에 압매장된 원생들의 시신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치아 말고는 유해가 나오지 않았습니

다. 발굴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평생 힘들게 살아온 피해자들 또한 한 명 두 명 삶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정부의 사과, 유해 전면 발굴, 추모 공간 조성. 하지만 정부는 아직 사과하지 않았고, 유해 발굴에 대한 견해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경기가 유해 발굴에 나서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 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국가폭력의 사례입니다. 이들보다 먼저 세워졌고, 40년간 아동 인권유린이 자행된, 아직 사망자의 수를 다 밝히지도 못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선감학원을 나온 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바람은 크지 않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

## KBS 뉴스7 주거빈곤 최초실태 그곳에 아이가 산다

### 아동 주거 빈곤, 행복하게 살 권리에 대하여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_ KBS부산\_ 장준영



'22599'.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의 수, 심지어 주거 빈곤 아동의 '세대 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세대 수의 8%에 달하는 이 수치는 감히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부산만의 조사에서도 이 정도 수치라고 하니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아동이 주거 빈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점에 맞추어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대상 선정과 실태 파악,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영향 그리고 환경 개선 후 변화와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성. 취재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을 어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들여다볼 순 없었습니다. 설득의 시간이 전체 제작 기간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

에 시작된 총 다섯 가구의 현장 취재. 방한 칸이 채 되지 않는 공간, 양변기도 없는 화장실. 좁디좁은 공간에서 일곱 식구가 생활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 샤워도 할 수 없어 늘 목욕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금전적인 문제로 매일 갈 수 없는 현실. 단열이 되지 않아 문 틈새로 들이치는 골바람에 시린 겨울을 보내고, 습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구석구석 핀 곰팡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집 안에서 몸도 누지 못한 채, 바깥으로 나뉩니다. 주거의 그늘에 치이는 사이에 피부병, 호흡기 질환, 우울증 등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 갑니다. 부모는 녹록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 자책으로 힘들어하고,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등바등 몸부림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

실에서 빈곤을 선택하지 않은 아동과 빈곤을 물려주기 싫었던 부모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아동 주거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빈곤이 환경을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이라 한다면 주거 빈곤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사회가 박탈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얼마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 환경이 바뀌면 아동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3억이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22가구를 선정했고, 낡은 시설을 고쳐 깨끗한 방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누런 벽지를 걷어내고 맑은 하얀색의 벽지로 새로 도배했고, 화장실에 새로이 양변기가 설치되니, "이제 화장실 가려고 밖에 안 나가도 되겠네."라며, 짧은 웃음들이 번집니다. '사는 건 다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2599'라는 숫자에 놀라고, 마주한 환경에 놀랍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는 늘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동 주거 빈곤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출생률에 목매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외면할 때 그 숫자는 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배웠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을 꿈꿉니다. 그래서 영상기자로서 더 보여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변화할 것들을 보여줘야 할 책무감을 느끼며, 계속해서 아동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KBS 특별기획 '갈색 이방인'

### 밤을 새우며 다가간 자연의 신비, 브라운 송어와 가마우지를 고스란히 렌즈에 옮겨 담다

환경보도부문 \_ KBS춘천\_ 최혁환



짧다면 짧은 7개월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작진이 그랬던 그림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은 역시나 자연에서 쉽지 않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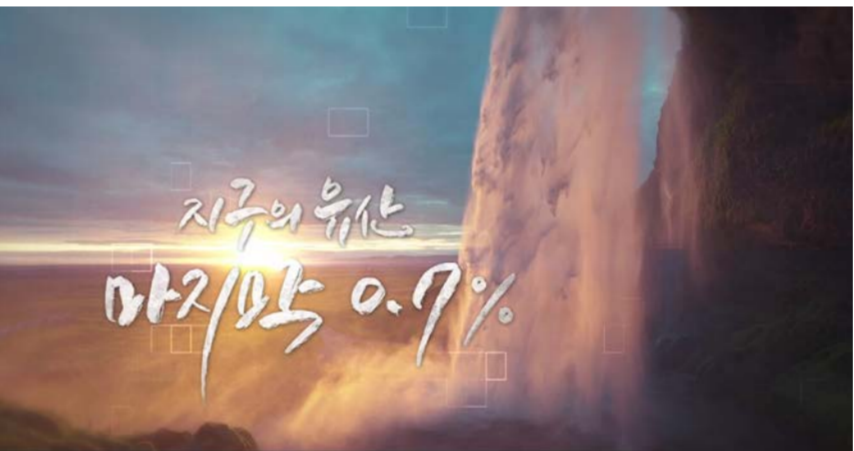
다. 하지만 우리 제작진에게 주어진 시간인 7개월 안에 어떻게든 제작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7개월 시간 중 브라운송어에 관하여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애로점이 있었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며 소양강에 살다시피 하다 보니 소양강의 포식자 브라운송어를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송어의 촬영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난관인 가마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 전 춘천 소양강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가마우지는 이상하게 개체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으며, 정체를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체들이 아직도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 후 가마우지 섬이라 불리는 곳에서 위장을 해가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가마우지 악취로 가득한 곳에서 카메라를 펼쳐두고 촬영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메모리에 우리만의 노력한 영상 결과물들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는 더욱더 욕심이나 가마우지 촬영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언제 어떠한 것들이 촬영될지 몰라 항상 액션캠 여러 대를 설치해 가며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해엄을 치는 가마우지를 근접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작진들 모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6명 팀원끼리 위로해 가며 좋은 팀워크를 발휘해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팀원들이 있었기에 영상기자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촬영을 새벽에 출발하고,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4박 5일 날을 새는 경우가 많았지만,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따라 준 오디오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JIBS 보도특집 지구의 유산 마지막 0.7%

### 지구의 유산 '물', 마지막 0.7%를 지켜라

보도특집다큐부문 \_ JIBS\_ 윤인수, 고송한(글)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물 때문이다. 지구 지표면은 70% 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물의 행성 지구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고작 0.7%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물은 많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한정적이다. JIBS는 그동안 물, 특히 지하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 지하수와 관련해 3차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가장 고민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수 문제와 관리 방안,

세계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심층 취재하면서 제주 지역 지하수 관리 체계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제주 사례에 국한하기보다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세계 섬나라 3곳에서 이뤄지는 지하수 문제, 물 부족 국가의 지하수 전략,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을 모아 정리했다. 특히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보다, 물의 소중함을 차분하게 전달하면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주민 동참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기후 변화 속에 지하수 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이나 한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임을 전달하고, 다양한 연구와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 지하수 관리 대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했다. 세계 섬나라 3곳의 취재와 촬영을 같이한 윤인수 선배, 김동은 선배에게 정말 감사를 전하고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특집 제작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와 격려를 해준 JIBS 보도국 선배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빛나는 제주의 도약

## 2025 APEC JEJU

2024년 상반기 개최지 결정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신입기자 인사말〉

사회 ‘취약계층’부터 ‘재벌 총수’까지... 내 프레임에 담긴 사람들

KBS\_ 강현경



영상기자가 된 이후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이지만, 내 카메라 렌즈 앞에 선 사람들을 나열하면 그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다. 영상기자는 방송국 그 어떤 직군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특정 출입처나 라인이 정해진 취재기자 동기보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PD 동기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경험했다.

손에 쏙히는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지닌 사람부터, 힘없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제약이 따르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을 내 카메라에 담았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ENG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핏대를 올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남녀노소, 세대 불문, ENG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이 내가 택한 프레임 안에 뒤섞이게 된다.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 사람들은 후자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 카메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취재원들은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고, 취재진과의 만남을 매우 절실한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입사 후 내가 만난 취재원들을 종합해보니 KBS에 온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저소득자, 장애인, 피해자 등 취약계층 취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담고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 사회의 균형이 유지된다. 또 이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

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영상기자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뒤따른다. ‘과연 그들의 간절한 메시지를 고스란히 내 카메라에 담았는가?’ 질문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다.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경험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새내기 기자다. 여전히 카메라 뷰파인더 앞에 붙은 KBS 로고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내 이름이 아닌 ‘아? KBS!’라 불러 줄 때 기분이 묘하게 좋다. 영상기자로써, 또 KBS 기자로서 느껴야 할 무게를 아직 온전히 느끼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책임감을 항상 생각하는 영상기자가 되고 싶다. 영상기자는 다른 언론 매체와 비교해 ‘방송 뉴스’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특성을 만드는 ‘필수 존재’다. 시청자는 10kg에 달하는 카메라를 어깨에 지고 산을 오르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을 뚫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노력을 몰라주는 시청자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보다 ‘내가 곧 시청자의 눈이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취재에 임하고 싶다.

재밌지만 힘들게? 재밌고 신나게!

KBS\_ 정준희



“음악은 이젠 내게 일이야. 헤드폰을 머리에 쓰는 것마저도 일이야. 음악은 내게 휴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게 숙직을 시키네... Music makes me cry.” 가수 휘성이 2014년 발표한 「돈 벌어야 돼」는 슬픈 노래입니다. 삶의 기쁨이었던 음악이 이제 자신을 울게 한다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취재하며 눈물 흘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언젠가부터 출·퇴근 할 때마다 즐겨 듣는 곡이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덕업일치’의 괴로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분야라고 해도 직업이 되면 예전만큼 순수하게 즐기 힘들다는 점이 덕업일치의 큰 단점입니다. 휘성이 음악에 열정을 느꼈던 2014년 무렵 제 카메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랫동안 촬영은 저에게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곳에서 일하며 수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카메라를 대하는 제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촬영 일은 어때요?”라고 물으면 몇 년 전에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미있지만 힘들어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말에 어순만 바꿨을 뿐인데 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촬영의 재미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로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채감 등이 즐거움보다 앞서게 됐을 뿐입니다. 취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찬히 들여다본 제 원본은 왜 이리 초라한지요. 아직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걸 알지만 자신의 부족함이 괴롭습니다. 어제는 이걸 놓쳤고, 오늘은 그게 아쉽고, 내일은 저걸 실수할 것만 같습니다. ‘분명 나보다 이 자리에 더 어울리고 간절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것밖에 못하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고민 끝의 결론은 취미를 일로 삼고 있지만 일을 취미처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촬영은 숙제가 아니고 이 길은 누가 등 떠밀어서 걷는 길이 아니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카메라를 놓지 않는 한 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밀려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 가득한 세상에서 ‘!’를 찾아가겠습니다

KBS제주\_ 한창희



?! KBS제주 신입 영상기자 한창희라고 합니다. ‘?’로 가득한 세상에 ‘!’를 찾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님들과 동기님들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뷰파인더 속 세상은 언제나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 속에서 ‘!’로 만들고 영상기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

달하는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영상기자마다 결과물 또한 다르지만, 우리들은 그 속에서 암묵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세상이 궁금해하는 ‘?’를 ‘!’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를 ‘!’로 만들어 놓는 관록 있는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서진 외양간이 고쳐지기 시작했다

KBS\_ 서원철



“취재가 시작되자 조사가 진행되었다.” 언론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도 사회에 대한 쓸쓸한 감정이 느껴지는 문장이다. 그리고 이 직업에 꿈을 갖게 한 문장이기도 하다. TV 뉴스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를 접하기 더 쉬운 일상에서도 이 문장이 통용되는 이유를 신입 기간 동안 체감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날 기획 리포트를 제작하기 위해 장애인 착취 피해 사례를 들으러 인터뷰를 진행하던 때다. 첫 번째 취재원은

지인에게 노동력, 성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였다. 익명으로 보도되길 원했던 취재원의 의견에 따라 장면으로 이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 인터뷰 장소로 가는 내내 고민했다. 현장에서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고 취재원의 신상을 가리기 위해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는 등 열심히 촬영에 매진했다. 힘겹게 카메라를 움직이며 앵글을 고민하던 중 피해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에 떠는 취재원의 표정을 뷰파인더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잠시 카메라에서 손을 뗀 뒤 취재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애써 덤덤히 말하는 말투 속 이야기는 끔찍했고, 가해자들의 변행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다. 그제야 기계적으로 하던 ‘촬영’을 멈추고 비로소 ‘취재’를 시작했다. 피해 상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손끝을 뜯는 취재원의 행동적 습관이 보였고, 그 감정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창밖에 흐르는 빗물이 보였다. 어떻게든 이들의 입장을 영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첫 번째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다. 두 번째 취재원 또한 지인에게 당한 착취 사례를 이야기했다. 일자리를 소개해준 단 지인의 말에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빼앗긴 두 형제의 사례였다. 고시원에서 나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담으려 동행취재를 진행했는데, 삶의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취재진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잠시 옷을 갈아입고 오는 동안 취재진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고, 무더운 날씨 속 인터뷰 장소를 여러 번 옮겼음에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 하며, 취재진에게 고생했다면서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다. 사건 속 가해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친절함과 선함을 이용해 노동력과 금전을 갈취한 것이다. 취재를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점차 깨달았고, 부디 이 보도가 현 실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그 바람이 미약하게나마 이뤄졌다. 해당 취재와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장애인학대처벌법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취재에 응해주었던 전문가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결과였다. 취재가 시작되어야 조사가 진행된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은 소라도 잃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잘 고쳐놔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부서진 수많은 외양간들을 고치고 다니는 기자가 되려 한다.

|   |                            |
|---|----------------------------|
|   | <b>2024년<br/>협·회원 인사동정</b> |
| <b>JTBC</b><br>2024.01.01<br>손준수·보도제작본부장대행,<br>보도제작본부 영상취재팀장                    |                            |
| <b>OBS</b><br>2024.02.01<br>차규남·OBS수원 라디오 본부장                                   |                            |
| <b>MBC</b><br>2024. 02. 20<br>정용식 - MBC제주 사장 임명<br>2024. 02. 21<br>양동암 - 뉴스영상국장 |                            |

|   |  |
|---|--|
|   | <b>영상기자</b>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
| <b>발행·편집인</b> 나준영<br><b>편집장</b> 현기택<br><b>편집위원</b> 김광현·김상현·안지훈·양재혁·유규열·이성민·이시영<br>전상범·정종배·정태우·최석규   |  |
| <b>취재기자</b> 안경숙 <b>행정</b> 오주아·이경선 <b>제작</b> 인쇄디자인 꿈   |  |
| 1999년 4월 23일 창간<br>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천, 마00009(격월간)<br>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r><b>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b> www.tvnews.or.kr<br><b>팩스</b> 02) 3219-6478 / <b>전화</b> 02) 3219-6476~7 |  |
| <b>한국영상기자협회</b><br>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  |
|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

KORAIL

KTX 개통 20주년  
20th ANNIVERSARY

KTX 20년의 가치, 100년의 행복

20 Years

# 대한민국 비상(飛上)을 위한 또 하나의 날개

세계 2위의 환적항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종점  
24시간 운항하는 여객·물류 국제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겠습니다